

기상사랑

www.kma.go.kr Vol.371

2012. May 5

풍경이 있는 날씨춘
물안개 속 유유히 헤엄치는 용, 예천 화룡포

기획기사
기상한류

포커스
GISC 서울을 통한 기상의 영토 확장!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세계로 ~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강릉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빛 구름, 채운

4월 19일 오전 11시 50분, 강원지방기상청 (강원 강릉시 사천면 소재)
하늘에 무지개빛 구름, 채운이 나타나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냈다.

강릉의 채운 (촬영장소 : 강원지방기상청, 촬영시각 : 4.19.11:50)
채운(irisation)은 구름 속의 물방울에 햇빛이 돌아들어가(빛의 회절)
구름에 색채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권층운, 권적운(지상에서
6~15km 고도) 또는 고적운(지상에서 2~6km 고도)에서 나타나며,
녹색, 복숭아색이 많이 보인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경에는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에서도 채운이 나타났다.

충북 진천군의 채운 (촬영장소 : 국가기상위성센터, 촬영시각 : 4.19.13:20)
예부터 상서로운 길조로 알려진 채운. 무지개빛 구름과 함께 봄이 깊어
가고 있다.



May 5



Contents

KMA Special Issue

- 나의 날씨이야기 좋은 날씨, 나쁜 날씨, 그리고 뻘한 날씨? · 02
- 풍경이 있는 날씨촌 물안개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용, 예천 회룡포 · 04
- 정책클로즈업 세계 일류 기상서비스를 위한 도전과 성과의 기록 3 · 06
- 기획기사 떠오르는 한류스타 기상이 · 08
- 날씨에세이 다시 시작하는 제2의 인생 · 10

KMA About

- 열린마당 21살 새내기들의 입사기 · 12
- 디지털 사진보정에 관하여 · 14
- 기상청과의 끝없는 인연 · 16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18
-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떠나는 추억여행 · 20
- “나현공! 나는 대한민국 현장공무원이다.” · 22
- 기상대 막내가 바라보는 우리 대장님 · 24
- 기상청장배 축구 우승... 어렵지 않아요! · 26

KMA Hope

- 포커스 GISC 서울을 통한 기상의 영토 확장!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세계로 ~ · 28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좋은 날씨, 나쁜 날씨, 그리고 뻘한 날씨?



조경아 / SBS 기상캐스터

5월 초에 개봉한, '거울아 거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동화, '백설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죠. 이 영화는, 왕비 역의 줄리아 로버츠가 생애 처음 악역을 연기했다는 점, 그리고 백설공주 역의 여배우가 동화 속의 공주와 무척 닮아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백설공주가, 나쁜 왕비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하염없이 왕자를 기다리는 동화 속의 모습이 아닌, 왕비에게 당당히 맞서, 왕자와의 사랑도 쟁취해 나가는, 능동적인 캐릭터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동화 '백설공주'가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아침드라마에 눈이 가지 않는 이유와 비슷하죠. 소재도 식상하지만, 뻘한 캐릭터들의 뻘한 갈등구조는 더더욱 식상하기 때문일 거예요. 착하고 예쁜 공주(여주인공)와 그녀를 괴롭히는 게 인생의 목적인 왕비(악역), 그리고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나 공주의 인생을 바꿔주는 왕자님.(드라마에서는 주로 실장님들, 요즘은 이사님들이 더 많아졌죠^^)

그런데, 동화나 아침드라마 못지않게, 날씨도, 소재가 참 거기서 거깁니다. 계절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매년 같은 자연 현상들이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식상한 표현들이 생겨났죠. 심술궂은 봄바람, 봄날의 불청객 황사,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계속 되는 장맛비, 어느 지역을 쓸어버린 최악의 태풍, 전국을 뽕뽕 얼린 동장군 등등, 제가 날씨 일을 해오는 동안, 꾸준히 들어온 표현들이고, 틀에 박혀버린 날씨 캐릭터들입니다.

저는,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히 최근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나 갈등구조가 참신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전형적으로 착하거나 나쁘지가 않거든요. 완벽하게 아름답기보다는 어딘가 빈 구석이 있는 주인공이라서 더 사랑스럽고, 악역도 무조건 나쁘기보다는 인간적인 매력을 풍기는, 그래서, '그래..그럴 수 있지..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도 저런 마음일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때로는 주인공보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에 더 짠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날씨라는 자연 현상 안에도 완벽하게 착한 캐릭터, 전형적인 나쁜 캐릭터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봄비의 경제적인 가치, 1mm당 200억원 이상' 이라는 자료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활 속에서 봄비는, 나들이를 방해하고, 봄꽃을 지게 하는 싫은 모습도 있지만, 푹푹 했던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가뭄과 산불을 막아주며, 그 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 주면서, 저렇게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거죠. 봄철에 외출은 커녕, 창밖을 내다보기도 싫게 만드는 나쁜 황사도,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하게 해 주고,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상기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겨울에 눈은 어떤가요. 생활 속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도로에 얼어붙으면 사람들을 넘어져 다치게 하는 싫은 모습도 있지만, 스키장에 쌓인 눈은 신나는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꼭 스키장에 가지 않더라도, 눈 내리던 날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웃음짓게 하는, 서정적이고 애뜻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름철, 가장 대표적인 악역으로 꼽히는 태풍은, 날씨를 업으로 둔 사람들을 가장 긴장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캐릭터죠.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와,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고, 인명피해까지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아닌 지구로 시야를 넓혀보면, 적도에 필요이상 넘치는 에너지를 이동시켜, 순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해보다 더 큰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태풍에게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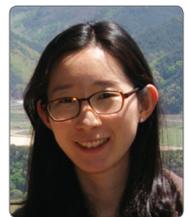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길, 어떤 일이든 10년 이상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그 일에 있어서 깊이와 노하우, 그리고 남다른 시각이 생길거라고 하셨었죠. 날씨가 직업이 된 이후, 열 번째 봄을 살고 있는 요즘의 저는, 날씨 캐릭터들이 가진 양면성을 충분히 들여다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무조건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없으니까요. 현실적인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듯이, 날씨를 전하는 일도, 조금은 틀에서 벗어난, 참신한 생각들이 바탕이 될 수 있을 때, 시청자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2012년 봄. 5월.



물안개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용, 예천 회룡포



박선영 / 상주기상대

따스한 햇살이 두 뺨을 만지고 싱그러운 바람이 코 끝을 스치는 봄. 집 안에만 있기 아깝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 무작정 어디론가 길을 나서 본 적이 있는가? 봄 날, 기분 좋은 날씨와 멋진 풍경, 거기에다 입안을 황홀하게 만드는 먹거리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여행지를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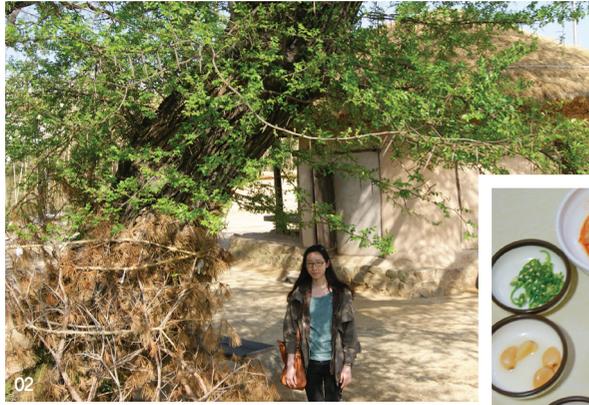
바로 우리나라 여행 작가들이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은 예천이다. 경상북도 북서 내륙에 위치한 예천은

소백산맥의 아늑한 기슭에 자리 잡은 물 맑고 인심 좋은 선비의 고장이다.

“예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예천군 용궁면에 위치한 한반도 최고의 ‘물돌이 마을’ 회룡포(回龍浦)이다. 회룡포는 낙동강 상류의 지류인 내성천이 350°로 마을을 휘돌아 흐르는데 나머지 10°마저 물을 돌렸더라면 말 그대로 ‘육지 속의 섬’이 되었을 것이다. 반짝이는 하얀 모래톱을 감싸며 돌아가는 옥빛 물길의 아름다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01



02

01. 전망대에서 내려가는 길
02. 낙동강변 마지막 남은 삼강주막
03. 예천 용궁 순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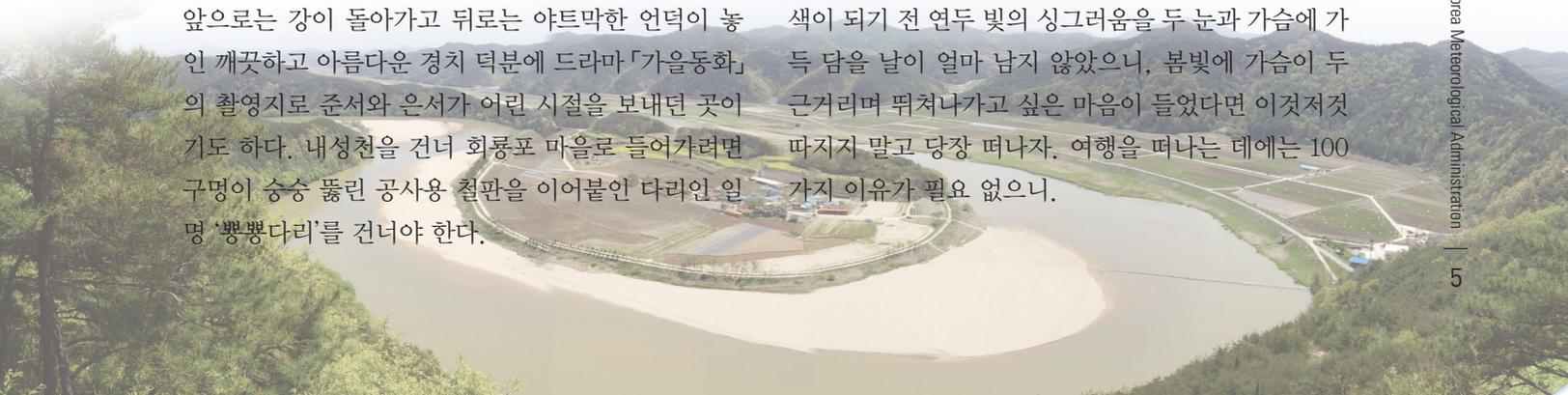
마을 앞산인 비룡산에 오르면 회룡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정상 바로 밑에는 통일신라 때 의상대사의 제자인 운명대사가 세운 장안사가 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탑에 덩달아 소원을 빌며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고 울창한 나무가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 밑 계단을 올라가면, 회룡대라는 전망대가 나온다. 시야가 탁 트인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회룡포는 한 삼만 프면 정말 섬이 되어버릴 것 같아 아슬아슬하다. 굽이 돌아가는 물길에 한 폭의 그림이다. 특히 비가 온 다음 날 새벽, 물안개가 마을을 덮으면 마치 성스러운 용이 유유히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회룡포는 한때는 죄인의 임시 귀양처였으며, 한국 전쟁 시에는 피난처이기도 했다. 사람이 들어와 산 것은 조선 고종 때로 예천의 아랫마을 의성(경북 의성군)에 살던 경주 김씨 일가가 소나무를 베고 논밭을 개간했다. 그래서 의성포란 이름을 얻었다. 이곳이 물들이 마을로 유명해지면서 의성군에 가서 의성포를 찾는 옷지 못 할 일이 많아지자 군에서 '회룡포'란 이름을 따로 지었다. 지금은 1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로, 앞으로는 강이 돌아가고 뒤로는 야트막한 언덕이 놓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로 준서와 은서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곳이기도 하다. 내성천을 건너 회룡포 마을로 들어가려면 구멍이 숭숭 뚫린 공사용 철관을 이어붙인 다리인 일명 '뽕뽕다리'를 건너야 한다.

예천에서 가 보아야 할 또 다른 명소는 바로 삼강주막이다. 경북 예천의 내성천과 금천, 낙동강이 만나는 곳을 삼강(三江)이라 부르는데, 삼강나루터가 있는 강변에 주막이 자리 잡고 있다. 낙동강을 거점으로 장사를 하던 보부상과 배들로 활기가 넘쳤던 주막은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관광지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마지막 주막은 2006년 세상을 떠났지만, 장작 지피는 아궁이와 연기 빠지는 구멍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직접 빛은 막걸리에 배추 전, 두부, 묵 등을 안주 삼아 옛 주막의 정취를 맛볼 수 있다. 거기에는 주막 건물 뒤 수령 약 500년인 회화나무가 옛 정취를 더해준다.

자, 예천의 명소들을 둘러보았으니 슬슬 배가 고플터, 이제 허기진 배를 달래줄 시간이다. 예천군 용궁면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용궁순대는 도톰한 막창의 쫄깃함으로 유명하다. 터질 것 같이 속이 팍 찬 순대와 오징어 불고기 그리고 순대 국밥 한 그릇이면 오감을 만족하는 예천 여행 완성이다.

어느 덧 봄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 여름의 진한 녹색이 되기 전 연두 빛의 싱그러움을 두 눈과 가슴에 가득 담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봄빛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당장 떠나자. 여행을 떠나는 데에는 100가지 이유가 필요 없으니.



세계 일류 기상서비스를 위한 도전과 성과의 기록 3

- 기상선진화추진단 3년을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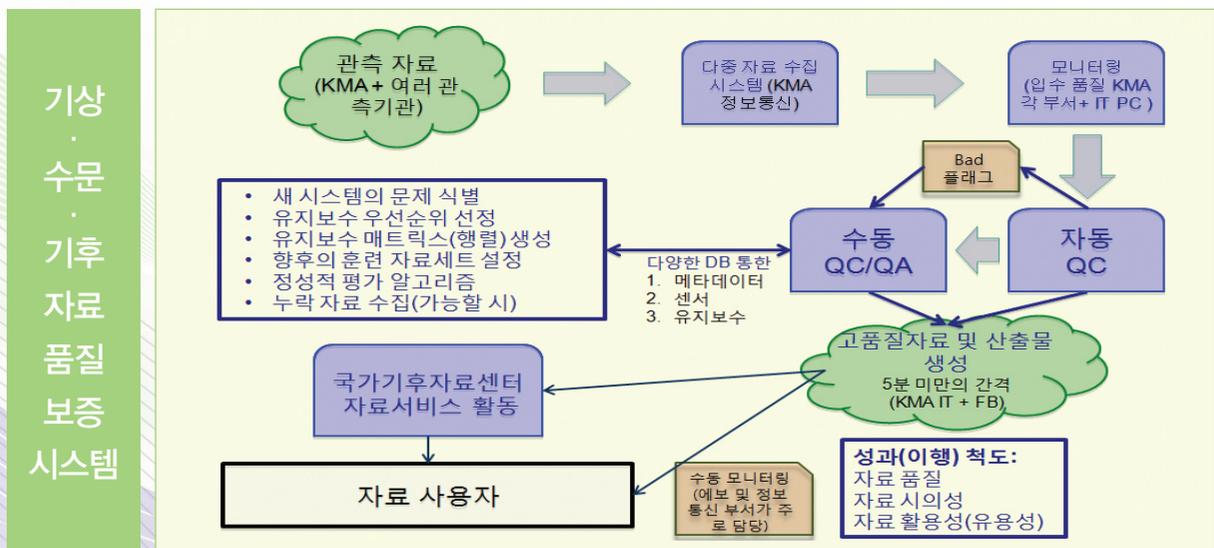
기상선진화담당관실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기록된 기상자료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다. 기상청이 보유한 관측자료는 예보 생산의 근간이 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자료로 활용된다.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기상청의 고품질 기후자료 생산과 관리, 서비스 체계의 선진화를 강조하였으며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국가기후자료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측 및 기상자원 분야의 선진화 성과를 돌아본다.

기후자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품질 관측자료 확보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기상청이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질(Research-Quality)의 관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료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여러 방안을 제안하였다. 관측지점 정보뿐만 아니라 센서 정보, 유지보수 현황 등 관측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록된 메타데이터의 정립, 관측 자료와 메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키는 메타데이터 시스템 개발, 기존 ‘실시간기상자료품질관리(RQMOD) 시스템’의 고도화, 자동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사업’ 및 2011년부터 시행된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하여 위에 나열된 제반 사항들의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상
·
수문
·
기후
·
자료
·
품질
·
보증
·
시스템

다양한 관측망을 묶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통합 관측망)’ 구축

각각의 관측망이 고품질의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후에는, 이들 다양한 목적의 관측망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산된 여러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관측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예보뿐만 아니라, 교통, 산림, 대기질, 국토방위, 공중보건, 농업,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기후자료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관측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효율적 자료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기후자료센터의 몫이다. 기상선진화추진단장 영입 당시 우리나라에는 국가기후자료센터가 없었다. 국가기후자료서비스의 핵심 철학은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과 ‘자료 개방 정책(Open-door policy)’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Easily accessible), 이해하기 쉽고(Easily understandable),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Easily usable) 한다는 의미다.

국가기후자료센터 설립 10대 원칙

- 원 스톱 쇼핑 (One Stop Shopping)
- 자료개방정책 (Open Door Policy)
- 가용성과 접근성을 갖춘 이해하기 용이한 자료
- 고효율의 품질보증/품질관리 (High Efficient QA/QC)
- 센서 유지/위치 선정 표준 정립 및 개선
- 메타데이터 수집/유지의 개선
- 자동기상관측자료 품질향상
- 관측 및 로거 프로그램의 재정의
- 건실한 관측 네트워크 특성의 정의
- 신규 자료의 종류와 형태 정의, 경제적 효과의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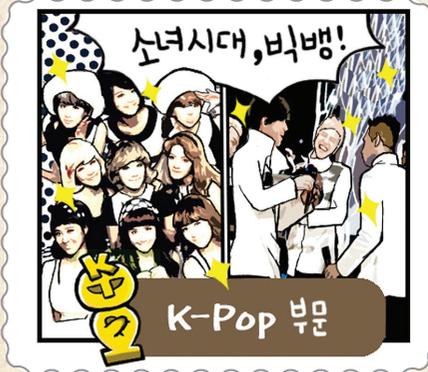
기후자료의 활용기반인 국가기후자료센터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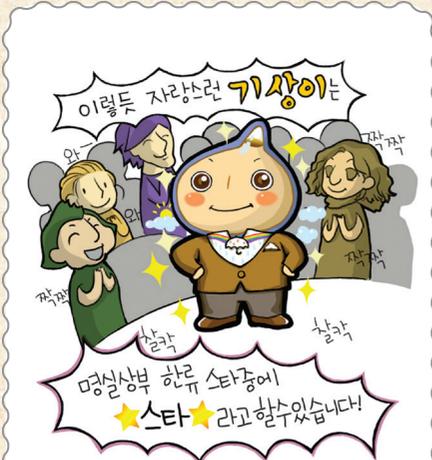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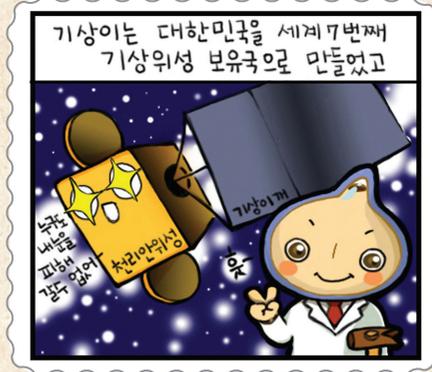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하여 기상청의 각 관측 담당 부서 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측자료를 이관·통합하여 통합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자료 품질관리 알고리즘 및 과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합된 관측자료에 적용하였다. 한편, 국가기후자료서비스를 위한 기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설치하였으며, 통계분석, 다양한 기후자료 표출 등이 가능한 국가기후자료센터의 웹서비스를 구축하여 현재 시험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제2차년도 사업에서는 기 구축된 통합DB를 기반으로, 기후자료 관리를 개선하고, 국가기후자료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용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보다 나은 기후자료 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

사용자를 배려하는 국가기후자료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2011년 8월 25일 기상청 ‘국가기후자료서비스촉진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제706호)’을 제정하였다. 이 훈령은 기후자료의 수집·관리 및 각종 응용자료의 생산을 위한 업무를 발전시키고, 기후 및 응용자료의 활용 촉진을 임무로 하는 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자료서비스촉진위원회에서는 국가기후자료서비스 촉진 기본정책, 기후자료의 품질관리 향상 방안, 기후자료의 데이터베이스관리 향상 방안, 기후자료의 민원업무 향상 방안, 국가기후자료서비스의 이해 확산 방안, 그 밖의 국가기후자료서비스 촉진에 관련된 주요 사안을 다룬다.

관측 분야의 선진화는 기상선진화 2번 과제의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관측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료 활용체계 분야의 선진화는 기상선진화 8번 과제를 기반으로 기상자원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시작하는 제2의 인생



이충태 /



01. 서울신문 2006.3.13
02. 1984년 양평이 전국 최저기온 기록했을 때 경향신문 인터뷰기사

‘뚫어 뺨’, ‘뚫어 뺨’ 하고 외치며 골목길을 지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의 안방을 따듯하게 데워주던 구들을 뚫어주는 굴뚝청소부가 왔다는 소리다. 구들이 막혀 방이 차가울 때 굴뚝청소부는 우리가정의 구들을 뚫어 방을 따듯하게 만들어 주는 반가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눈에서 굴뚝청소부가 사라져 버렸다. 2012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의 수는 9,298개로 2003년에 비해 1,318개가 늘었다고 한다. 10여년 동안에 1,300여개의 직업이 새로 생긴 것이다. 애완동물 장의사와 같이 새로 생긴 직업이 있는가 하면 굴뚝청소부 같이 없어져 버린 직업도 상당수 이른다고 한다.

하긴 필자가 70년대의 기상청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기상청을 관상대라고 부르고 있었을 때이니까 말이다. 그 때 기상직 시험에 합격하여 관상대 취직되었을 때 옆집 할머니가 ‘취직을 축하한다고 하시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하더니 ‘관상은 언제 배워서 관상대에 들어갔느냐?’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그 때 5백여명이던 기상청 직원이 두 배가 넘는 1,300여명으로 늘어났고, 하는 일도 단순한 관측, 예보업무에서 수치예보, 기상위성, 기상레이더, 관측장비 등으로 다양해졌다. 또한 기상청 이외에도 기상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는 기상산업진흥원, 군기상을 지원하는 공군기상전대, 특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사업자,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관련기관, 전문기상인력을 양성하는 기상관련대학 등으로 확대되었고, 여기에 종사하는 기상인의 수만도 수 천 명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기상에 관련된 새로운 직업인 ‘기상자문관’이 생겼다. 지난 3월에 기상청에서 마련한 기상자문관 과정 교육 중 도로 관리에 기상정보가 꼭 필요한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업무에 그대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강사가 있었다. 생소한 기상업무 익히기가 어려워서 기상전문가가 도로업무를 배워서 기상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다고 했다. 대기과학을 전공했지만, 예보 등 기상실무를 잘 몰라 기상업무 지원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강사도 있었다. 특히 기상정보를 회사의 정보로 쓸 수 있



01



02



03

01. 2005년 10월 미국 NOAA에 연수 갔을 때 연수단원들과 함께
02. 2006년 8월 조선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고 아내와 함께
03. 2012년 2월 호주 관광 할 때 하버브리지를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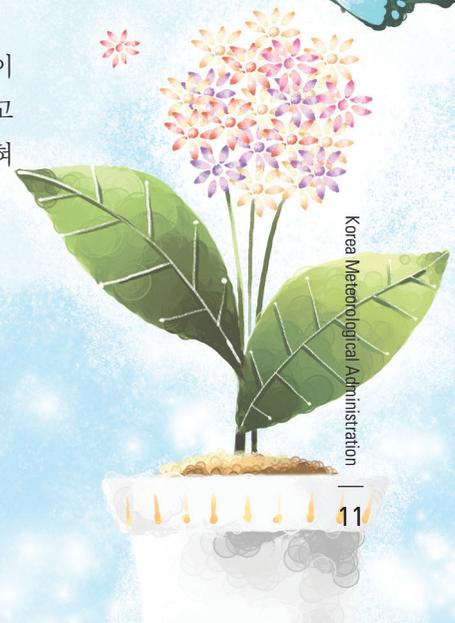
도록 하는 변환기술이 필요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인 기상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회사수익이 1,000 억원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며 자랑하는 이도 있었다.

또한,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많은 나라에 파견되고 있는 해외기상자문관의 수도 필요에 의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상업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급성장하게 된 과정과 성과를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상업무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년 기상재해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고, 기상이 국민편익 증진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는 올 6월이면 41년간 동안 정들었던 기상청을 떠나게 된다. 'SSB'라는 무전기로 기상전문을 송·수신 하던 시절이 옛그제같은데, 전 세계에서 7위권으로 도약한 우리 기상청의 발전사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리고 필자도 기상청과 함께 반평생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도약한 자랑스러운 기상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영국의 저명한 우주물리학자 Stephen William Hawking 박사는 앞으로 인류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핵전쟁과 기후변화'라고 예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 기상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상인들의 몫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기상자문관의 역할도.... 넓혀져 가는 기상영토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21살 새내기의 입사기



이나혜 / 운영지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서 저는 21살, 견습직원으로 기상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는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기능인력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 출신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상위10%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가진 졸업(예정)자로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중앙부처에서 6개월간 견습근무 후,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제도입니다. 제 전공분야인 건축! 여자로서 조금은 생소한 직업이지만 건축가 집안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자란 탓에 제게 건축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성화고교 건축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아하는 건축디자인을 하기 위해 대입을 준비하고 있던 중 담임선생님께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에 가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건축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배우고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배운 것들을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에 능력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과감하게 대학입시를 포기했습니다. 필기시험, 면접 과정을 통해 최종합격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3월 12일부터 3주 동안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동기'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반과 분임조를 이루어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 및 자세, 기본적인 에티켓, 문서작성법, 공직윤리, 스피치방법 등을 배우며 제가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저에겐 표지판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집이 광주여서 광주 지방기상청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생각과 다르게 저는 본청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첫 출근을 하기 전까지 이틀이라는 시간밖에 없었고, 부랴부랴 짐을 싸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사회라는 집단에 속하게 돼서 설레고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두렵고 무서워서 첫 출근 전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텅텅 부은 얼굴로 첫 출근길을 헤매서 지각할 뻔 했을 때 속으로 제발 늦지않게 기상청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느님을 외쳤는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진 게 있다면 등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상청에 출근하는 것, 첫 출근 날 기상청 입구에서 견습직원증을 보여주고 들어온 것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것, 아침마다 엄마한테 물어봤던 말을 안 해도 되는 것 “엄마, 오늘 날씨 뭐래? 비 안 온대?” 뭐 이정도? 하하 ^^

기상청에 하루하루 눈도장, 발도장 찍은 지 4주 쯤 되는 날 '생생 톡톡' 운영지원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외부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어서 긴장도 됐지만 웬지 복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수학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 설레고 들떴습니다. 단체사진을 찍을 때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 저는 청장님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쩍쨍하게 청장님 옆에 꼭 붙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라는 생각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외부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선배님들에게 조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어색한 제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러 장난도 쳐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시설계 사무관님들과 주임님들. 딱딱하고 보수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공무원 생활을 재미있고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될 게 많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제가 맡은 일은 제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완전 조오다 (♥0♥)



디지털 사진보정에 관하여



이용국 / 대변인실



양상했던 가지들이 푸른 잎으로 풍성해지고, 겨우내 잠자던 꽃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거리를 나옵니다. 디지털의 발전으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 기능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진 촬영과 함께 보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진 보정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빼고, 광내기.

구두에 광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구두에 묻은 먼지부터 제거한 후 구두약을 묻혀서 광을 내야 합니다. 만약 구두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구두약을 바른다면 제대로 광이 나지 않게 되죠. 사진 보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 광을 내고 아름답게 만들기 이전에 반드시 사진에 잔뜩 묻은 먼지(잘못된 노출, 초점, 화이트 밸런스, 노이즈나 먼지)등을 제거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때 빼고, 광내자’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불필요한 요소(때)를 먼저 해결한 뒤 여러 가지 효과(광)를 줘야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보정을 하기에 앞서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부족한 사진인지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의 간이 짠 것인지, 싱거운 것인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요리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소금이나 간장을 넣는다면 이상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정 역시 이 사진에서 고쳐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이런 저런 효과를 넣거나 보정한다면 이상한 사진이 될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리를 먹어보고 만들어봐야 하듯이, 좋은 사진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많이 보고, 자신이 많이 촬영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포토샵은 사진가의 창조적인 친구.

사진 보정에 있어서 ‘A’ 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B’ 또는 ‘C’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결과물일 뿐, 어떠한 도구, 어떠한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無)보정이든, 윈도우 그림판을 썼든 상관없습니다. 포토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언급되면서 ‘사진은 대충 찍고 포토샵으로 어찌해보자’ 라는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샵은 표현을 돕는 창조적이고 근사한 친구일 뿐, 사진가의 투정을 무작정 받아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무조건 포토샵에 의존하다보면 결코 사진 실력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합성에 관한 논란.

포토샵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합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합성을 허용하지 않는 자리에 교묘하게 합성한 사진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합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면 당당히 이 작업에는 이런 저런 합성 작업을 했다고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포토샵과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이 창조적인 보정 도구가 아닌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합성이나 하는 일명 ‘뽀샵질’ 로 오해받고 오용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보정’이란 말의 뜻처럼, 과도하고 화려한 효과보다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부족한 점을 고치고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보정은 현장에서.

손자병법을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병법’ 이라고 했습니다. 보정 역시 대충 찍고 나중에 포토샵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보정할 필요가 없도록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촬영하는 것이 최선의 보정입니다. 촬영한 사진이 좋아야 보정이든 뭐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얼굴의 잡티가 문제가 된다면 꼼꼼한 메이크업을 통해 해결한다거나, 배경이나 구도가 문제가 된다면 구도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꿔서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의 노출이나 흔들림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나중에 포토샵으로 보정할 경우 반드시 화질 손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촬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상청과의 끝없는 인연



최유미 / 부산대학교
대기학과

지난 4월 중순,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남재철 부산지방기상청장님(현,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만남이 부산 동래에서 있었다. 간단한 맥주와 함께 학교에서의 이야기와 기상청의 이야기들이 서로 버무려져서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비록 부산청장님 한 분과의 만남이었지만, 그 동안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와 기상청과의 꾸준한 인연이 이어져 왔기에 이번 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인연의 시작을 당당한 대학생들의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 방문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한다.

기상청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인연은 2년 전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시작된다. 당시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단장님으로 계시던 남재철 청장님의 도움으로 학교를 방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연구도 있었고 사진으로만 보던 기상장비들도 실제로 볼 수 있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험이었다. 그 후에도 LG Global Challenger 공모전에 참여한 4명의 학생들이 오클라호마 대학을 방문하여 한국 기상청 직원들이 먼 미국에서 함께 연구하는 모습과 미국의 기술력 등을 부산대학교에 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두 팀의 미국 방문은 짧은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미국의 학문과 기술력을 봄으로써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으며, 기상청과 대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인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연의 시작은 부산대학교 학부생들의 부산지방기상청 방문으로 이어진다. 대기과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으면, 꼭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 내용과 기상청에서 하는 일과 통하는 것이 있을까?’ 학부생들의 기상청의 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한 궁금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깊어진다. 이러한 질문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대기과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용감하게 남재철 청장님께 메일을 보내 견학





이 가능한지 여쭙봤다. 아직도 그 당돌한 메일을 잊을 수 없다던 남 청장님은 흔쾌히 승낙 하셨다. 부산청을 방문한 동아리 학생들이 그 동안 궁금해 하던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셨던 예보관님과 직원분들이 많이 애먹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최근에는 ‘미래 기상인재를 위한 Weather Camp’를 부산대학교에서 가졌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과정은 미래 기상청의 인재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최신의 기상청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레이더 자료의 해석 방법, 위성 자료의 우수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그 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내용이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기상청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기상청과 대학교와의 조그만 교류들이 쌓여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인연의 끈을 여기서 놓지 않았다. Weather Camp 마지막 강연 중에 남청장님께서 학생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신다고 느낀 대학원생 두 명(이승연과 최유미)은 청장님께 연락을 드려 학생들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소소한 기상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대학원생들이 바라보는 기상청의 모습 또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가 더 맛있게 넘어갔다. 이렇게 동래에서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이후 남청장님이 서울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맥주집에서 인연을 만들었던 대학원생들은 롤링페이퍼를 블링블링하게 만들어 선물로 드렸다.

2년 전 오클라호마 대학교를 방문하여 가장 인상깊게 보았던 것은 학계, 정부 그리고 산업 분야가 서로 활발한 교류를 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었다. Weather Camp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공통 주제인 대기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기상청과 학계의 교류가 있다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꼭 지식의 교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상청과 기상학과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교류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꽃보다 화사하게



내가 꽃보다 이쁘!



개나리 꽃밭 속 병아리들



축구공을 사랑한 소녀



어머니 꽃이 이쁘, 내가 이쁘?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떠나는 추억여행

-CNUP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ilharmonic Orchestra)
그리고 아로망



오희진 / 제주공항공기상대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출근하니, 사무실로 저를 급하게 찾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정말 급하셨는지 아침 브리핑 시간에 전화가 한번 더 왔습니다. 항공기상청에서 세유전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희진씨가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순간적으로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했지만, 전화하신 분과의 친분을 생각하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린은 손 놓은지 5년이나 되었고, 연습할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습했지만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주 당일, 다행히도 많이 떨리긴 했지만 결정적인 실수 없이 3분간의 연주를 마쳤습니다. 평소에 연습 좀 하고 살았으면, 더 멋지게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결과보고서에서 저의 연주모습이 가장 크게 나와 그 날의 주인공이 제가 된 듯 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보단 다른 청과 차별화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전 그날 이후 항공기상청의 바이올린니스트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74년생 호랑이 띠입니다. 20대 어린 여직원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지만 40살을 바라보는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니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자기 PR 시대라고 하니 제가 20대에 바이올린 연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충남대학교에 입학하여 새내기 시절 해질녘에 교정을 거닐던 중 문과대 강의실 창문으로 선배들의 오케스트라 연주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다음날 바로 관현악단에 입단했습니다. 「충남대학교 관현악단」은 1973년도에 창단되어 올해 새내기가 40기라고 하니 전통있는 동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관현악단 활동시절
93년도 대학교1학년 여름합숙



동아리 생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1학년 신입생들은 대부분 악기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2학년 선배가 1학년을 2~3명씩 맡아서 지도합니다. 여름방학 때 10박11일로 여름 합숙을 하는데 보통 시골의 폐교로 장소가 정해집니다. 잠은 교실에서 자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샤워실은 당연히 없습니다. 천막치고 샤워하는데 11일 동안 딱 한번 그것도 3분 동안 샤워했습니다. 2학년 정기연수회 연습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에 3~4시간 기본으로 하고, 연주회 1개월 전에는 평일에는 3시간, 휴일에는 10시간 이상 연습합니다. 다시 말해서 휴일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에 끝납니다. 그 당시 연주했던 곡들은 아직도 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파트부분까지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파트의 2nd Vn은 2학년이 연주하고, 1st Vn은 3학년 이상, 그리고 동문선배님들이 연주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꽃인 1st Vn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 고행을 3학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재학시 지나가던 동아리 후배가 '선배님, 1st Vn 인원이 부족해요.' 라는 말에 맘 약해져 한번 더하여, 세 번이나 이 살인적이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바이올린은 내 생활이었는데, 기상청에 입사하고 함께 연주할 사람이 없어 허전하던 차에 인천공항공사에 음악동아리 「아로망」을 알게 되었고, 용감하게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로망」은 인천공항 상주직원, 공항신도시 주민들 중 음악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 연주하는 모임입니다. 그곳에서는 봄가을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연주회를 하면서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활동하다가 결혼과 육아가 겹치면서 동아리 활동을 접었고,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했었다는 것 자체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바이올린에서 손 놓은지 5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 제가 바이올린 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셔서 세유전국을 통해 연주해보고,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20대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현재는 제 취미생활보다는 직장생활, 육아와 가사가 우선이므로 조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제가 항상 꿈꾸는 천 만원 넘는 올드 바이올린을 가지고 관현악단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는 향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저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현공! 나는 대한민국 현장공무원이다.”



황을조 / 청원기상대

현장공직자 CS워크숍은 1박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교육은 축제요 축복이었다. 특히 청와대 견학은 죽도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다.

청와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잘 가꾸어진 잔디와 푸른 기와였다. 역시 청와대의 푸른 잔디는 잘 정돈 되어있어 잔디관리 노하우가 대단한 듯 보여 또 한번 감동받았다.

청와대 입구 검색을 마치고 먼저 도착한 곳은 녹지원(綠地園)! 녹지원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120여종의 나무가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가 있는 곳이다. 티비에서 어린이날 대통령내외분이 나와서 행사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였다. 이어지는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주변경호지역을 제외한 잔디와 한옥을 위주로 사진촬영이 허가되었고 우리는 핸드폰 카메라를 연신 가동시켜 추억을 저장하는데 정신없었다.

대통령의 집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되고 있는 청와대 본관을 지나서 청와대와 잔디운동장을 배경으로 또 한번의 사진촬영이 허가되었고 어린아이처럼 많은 셀카사진도 찍고 단체사진을 찍으며 대통령이 된 듯 한 착각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와대 현장방문을 마치고 중앙공무원 교육원 윤은기 원장님의 정체성 강의! 원장님은 과거 티비에 많이 나와 낯이 익었고, 처음에는 연예인을 보는 마냥 반가웠다. 국민의 행복은 현장에서 결정되고 현장공무원 스스로가 행복해야만 국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교육생들과의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게임과 레크레이션 시간도 가졌다. 어릴때나 해보았던 수건돌리기 게임도 하고, 네 명씩 팀을 구성해서 지정된 사람이 이동하는 게임도 하였다. 운동을 하면서 땀뻑하고 우스꽝스러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를 잡고 웃기도 하였다. 게임을 하면서 직급,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게 협동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또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고 땀을 내고, 웃고 해서 그런지 엔돌핀이 마구 솟는 느낌이었다.

둘째날 이강수 강사님의 ‘국민행복을 위한 현장공직자의 마음과 스킬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공직자의 자부심은 우리가 선도해온 대한민국 역사 그 자체라는 말씀에, 묵묵히



01



02

01.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문
02. 청와대 녹지원

현장에서 소신껏 국민과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날을 보상받는 듯 하여 기분이 좋아졌다. 교육 말미에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에는 기상청장님 이하 간부님의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진정 소통을 체감할 수 있어 좋았다. 기상의 영토를 넓히자고 견배제의도 하였고 앞으로 기상청이 나아가야할 비전이 있어 더욱 가슴이 뿌듯해졌다.

모든 교육을 마치고 버스에 올랐는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때 내가 진정 대한민국 현장 공무원이고 내가 행복하자! 그리고 그 행복을 국민에게 베풀자! 한시라도 빨리 직장에 가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가슴에 오래남아 행동으로 실천하자! 나는 현장공무원이니까. 이번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로또와도 같은 행운이었고, 이런 교육이 우리 직원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현공! 그날 다짐했던 각오를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기상대 막내가 바라보는 우리 대장님



박태진 / 성산기상대



신규자 조직적응 과정이 끝난 후 드디어 성산기상대로 첫 발령이 났다. 성산기상대에 도착해 처음 인사드린 분이 바로 손태성 대장님이었다. 흰 칠한 키에 진회색 수트 차림의 신사의 모습이 우리 대장님의 첫인상이었다. 대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성산기상대장으로서 제주도에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이수하기위해 매 주말 서울에 올라가시는 대장님의 끊임없는 학구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시며, 책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대장님을 소개하겠다.

두 번 다닌 고등학교

대장님은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으로 부산에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공부의 필요성을 몰랐고 충실한 생활을 하지 않아, 졸업은 했지만 정말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 진정, 사람은 알고 싶은 것만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강조하셨다. 그리하여 다시 학교에 들어가 고등교육 과정을 두 번 이수 하는 특이한 경우가 되었다.

특히, 화교학교를 다니면 중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입학원서를 제출했으나 화교 두 사람의 보증을 받아오라는 학교 방침이 있었다. 중국 음식점에 가서 사정도 해 보았지만 보증인을 찾지 못해 입학하지 못한,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학문을 향한 끝없는 열정

기상청에 들어온 후 대장님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농학, 법학, 중어중문학, 경영학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하고 2002년에 중국 남경기상학원(현, 남경신식공정대학) 대기과학과에서 이학박사 취득을 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 공인 자격증과 민간자격증 10여

개를 취득했고,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무엇이든 계속 배우고 있으시다. 마치 그 삶의 원동력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대장님의 열정은 자신을 넘어, 아내에게도 공부할 권해 열매를 맺게 했고, 자녀들도 3~4개국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두 번의 논문상 수상

대장님은 37년간 기상청에 몸담고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셨다. 대장님은 농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인지 농민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신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농작물의 서리피해 현황과 대책’ 이라는 논문으로 입상을 하였는데 공부한 보람을 느낀 매우 기쁜 순간이라 하셨다.



주민을 섬기는 기상행정 실현

태풍 내습 시에는 관할 방재기관에 기상대장이 직접 찾아가 브리핑 하는 등, 특히 제주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도지사 표창패를 받았다. 또한 관내 약 4만 인구와 30개 학교 5,0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성산기상대와 농업기술원간 협조가 잘된 수범 사례로, 지표식물기상관측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황근(노랑무궁화), 능소화 등 식물이 환경에 적응 하는 것을 관찰하여 기상관측에 이용하는 것이다. 또 옛 어른들이 아시는 날씨에 대한 여러 속설을 자연현상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 보고, 이를 집대성하여 과학과 삶의 지혜 연계로, 기상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라 88년부터 생명의 전화 상담사로 봉사했고 연 1000 시간이 넘어 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사이버 상담만 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리는 상담이 100회를 넘어서고 있다.

성산기상대의 모든 이들 중에 가장 내면이 젊으신 우리 대장님은 기상대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시고 가장 나중에 퇴근 하실 정도로 열정적이며, 책을 보며 따뜻한 눈물을 흘리는 가슴까지 가지셨다. 대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기상대 모든 직원이 간절히 바란다.

기상청장배 축구 우승... 어렵지 않아요!



김영수 / 제주청 축구동호인회

스코어는 1대2... 한골로 승부가 가름될 수 있는 승부차기가 시작되고 있다. 드디어, 제주청 4번째 킥커가 등장한다. 순간, 술렁이던 원주경기장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잠시 숨을 고른 킥커가 앞으로 달려간다. 슈~~웃... 골~~인... 와~~ 조용했던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차며 그렇게 제14회 기상청장배 축구대회는 막이 내려지고 있었다.

이번 축구대회는 신생팀인 위성센터를 포함하여 총 10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2개조로 나뉘어 예선전을 거치고 조별로 1,2위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진운은 실력 여부를 떠나 중요한 부분이며 진흥원은 1승1무의 준수한 성적으로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제주청의 대진운은 그렇게 좋지 못하였다. 이번 대회 가장 젊은 피로 구성되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된 연구소와, 지난 대회 우승팀인 강원청을 넘어야만 본선의 문턱을 밟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첫 경기의 휘슬이 불리고 연구소와의 일전이 시작되었다. 기대대로 연구소의 막강한 파상공격이 시작되었고 몇 차례의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제주청은 골 결정력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3대1의 스코어로 승부를 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만난 팀은 전년도 우승팀인 강원청. 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강원청의 빠른 공격이 시작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골망이 흔들렸다. 아마 이번 대회 가장 빠른 골이 아니었을까... 이 골로 분위기는 강원청으로 넘어갔다. 몇 번의 위기를 몸으로 막아내며 버티던 제주청은 비로소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며 파울로 얻어낸 PK를 통하여 곧바로 만회골을 넣을 수 있었다. 축구 경기가 분위기 싸움이라면 이때 이미 승리의 여신은 제주청의 손을 들어준 듯하다. 더 이상의 실점을 하지 않으며 바로 반격에 성공한 것... 결과적으로 강원청의 패인은 초반 강세를 지켜내지 못하며 쉽게 골을 내준 것에 있었다.



01



02

01. 단체 줄넘기 02. 제주청, 파이팅!



승부는 박빙이었지만, 결과는 3대1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A조는 제주청과 연구소가 B조는 위성센터와 본청이 본선진출권을 획득하게 됐다. 드디어 4강전이 시작되고 만년 우승후보 본청과의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졌다. 어느 팀인들 본청과의 승부가 편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본청 역시 제주청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일진일퇴의 경기가 전 후반 내내 이어졌지만 제주청에는 다윗의 돌팔매보다 정확한 원샷원킬의 저격수가 있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단한번의 패스만으로 찬스를 만들어 내는 조직력... 아무리 본청이라도 단 한 번의 패스로 골키퍼와 1대1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과는 2대0의 승리로 결승전에 오르게 되며 운명의 장난처럼 첫 경기에서 만났던 연구소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되었다.

결승에서 만난 연구소는 부산청과 위성센터를 연파하며 사기가 높아졌으며, 예선전에서 패배는 강한 승부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결승전단계 전·후반 50분의 경기에도 승부는 나지 않았고 승패는 피말리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제주청은 마지막 히든카드가 남아있었다. 4경기 동안 잘 막고 있었던 수문장의 교체였다. 신장 185cm, 몸무게 88kg 거구의 제주청 괴물 5번 강민호... 가만히 골대 앞에서 있어도 넣을 공간이 없다. 그걸로 승부는 끝이 나버렸다. 연구소의 1,2,3번 킥커가 연속으로 실축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축구대회는 축구 외에도 드리블계주, 단체줄넘기, PK넣기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백미는 팔도에서 올라온 지역 특산물이 아니었을까? 제주청은 전통적으로 자리돔을 챙겨가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 음식 중에서 자리돔이 제일 맛있었다는 후문도 있었지만 실제로 제주청 천막에는 자리돔을 맛보기 위한 행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여러 직원들에게 푸짐하게 먹고픈 마음에서 20kg에 달하는 자리돔을 솔선수범으로 손질을 해주신 기후과장님, 손에 물집까지 생길 정도로 열심히 도와주신 여직원 여러분, 제주공항기상대 직원 여러분, 이번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청장님, 제주청 축구유니폼의 마크를 손수 디자인해준 장승민 주무관, 축구대회를 참가하고 싶었지만 남아서 제주도를 지켜주신 직원 여러분...(지면상 부득이 생략) 이번 축구대회 우승의 영광은 11명의 주전선수보다 그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12번째 선수들에게 돌려야 맞을 듯하다.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부르고 도둑, 대문, 거지가 없어 삼무의 섬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남단 탐라국 제주도...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도둑이 없고, 이 때문에 대문이 필요 없으며, 몸에 배인 근면함은 거지가 없는 삼무의 제주로 반전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제주청 행보, 더욱 기대되지 않는가...

GISC 서울을 통한 기상의 영토 확장!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세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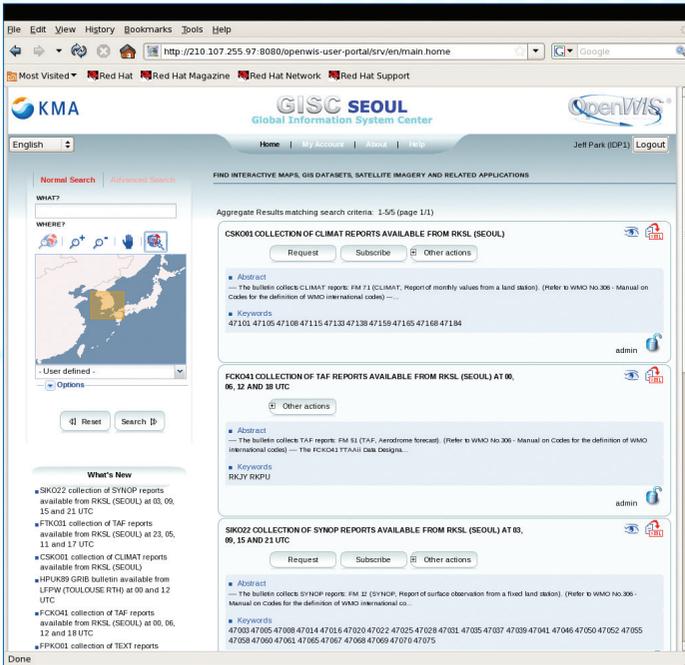
이동일 / 정보통신기술과장

기상자료·정보 서비스는 기상업무가 일반국민을 포함한 정보사용자들과 만나게 되는 최전방의 업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이미 국제적인 거대 이슈로까지 확대되어버린 기후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고서는 좀처럼 감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변화무쌍한 계절별 날씨의 변화도 기상·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WMO의 새로운 정보시스템인 WIS(WMO Information System) 기술의 핵심은 ‘자료와 정보를 찾기 원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편의성 증대’ 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전 세계 기상업무의 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WMO의 세계기상통신망 GTS(GTS :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는 현재 6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매우 안정적인 시스템인 반면 대용량 자료에 대한 유통 제한 등 고비용 저효율성이면서 사용자 접근성 등이 매우 제한적인 폐쇄적인 통신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추진 중인 WIS 체계에서의 ‘GISC 서울’은 기상정보에 대한 인터넷 상의 ‘전세계 거대 전자 도서관’이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향후 사용자들은 전 세계 WIS 센터중 하나인 GISC 서울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이며 중요한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전 세계 기상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실제 WIS의 핵심기술은 DAR(Discovery, Access, Retrieval)이라는 자료검색 및 접근, 입수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기본적인 기능은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센터간 사용자관리 및 보안, 타 GISC 간 동일 자료의 공유, 연계성 보장 등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정보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 국가 내외로 알려져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GTS 체계에서 정보를 받기만 했던 수혜자 입장이고 WMO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전문가를 배출 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매우 비약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GISC 서울' 웹 포털 시안.



한국기상청의 2012년 화두는 '기상의 영토확장' 이다. 이를위해 기상·정보통신분야에서는 WIS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야 할 숙제들을 갖게 되었다. 특히 WIS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기상사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 하부센터 육성, 국내전문가의 WMO 진출 등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업무로 분류 될 수 있다.

GISC 서울 유치는 '①기상산업을 통한 기상영토 확장 ②국제협력을 통한 기상영토 확장 ③WMO 전문가 진출을 통한 기상영토 확장' 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이고 고효율적인 핵심 업무인 셈이다.

기상청은 WMO의 새로운 기상예보체계 구현을 위해 WIS 체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국내 기상자료에 대한 정보등록을 통해 지역상세 수치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상청, 스리랑카에 '천리안 위성자료 수신시스템' 공여 (4.5)

조석준 청장은 4월 5일 스리랑카에서 열린 천리안 위성자료 수신분석시스템 공여식에 참석했다. 기상청은 2011년부터 스리랑카 현지에 천리안 위성자료 분석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봄비의 경제적 가치가 210 억원 (4.25)

4월 25일 제3회 기상인 포럼과 강수의 경제적 가치평가 워크숍이 열려 봄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소개했다.



신임 이일수 차장 취임 (4.9)

4월 9일 신임 기상청 차장에 이일수 기획조정관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배 축구대회 (4.28)

4월 28일 원주에서 전국 기상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기상청장배 축구대회가 열렸다.



현장공직자 CS워크숍 (4.12~4.13)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열린 '현장공직자 CS 워크숍'에 전국의 기상인 100여명이 참석해 현장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고객만족 스킬을 향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목일 행사 나무심기 (4.4)

4월 4일 식목일을 맞아 노량진 근린공원 숲에 산철쭉, 진달래 등 300여 주의 나무를 심었다.



지역기상 담당관 워크숍 (4.16)

4월 16일 지역기상담당관 워크숍이 열려 지역 기상담당관 임명식을 갖고 향후 수행 방안 등을 토의했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운 Quiz 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 기능인력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성학교·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① 기상인재 추천채용제 ②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③ 공교육인재 추천채용제
- 기상청은 기상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험운영 하고 있는 것은?
① 국가예보자료센터 ② 국가기후자료센터 ③ 국가관측자료센터
- 한반도 최고의 물들이 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낙동강 상류의 지류인 내성천이 35°로 휘돌아가는 곳은?
① 곤룡포 ② 화룡포 ③ 회수포



지난 달 퀴즈 정답 : 1. ③ 2. ③ 3. ③

지난 달 퀴즈 정답자 : 1. 조희영(경남) 2. 신철호(경북) 3. 서인남(충북) 4. 유재범(서울) 5. 문지혁(제주)



퀴즈 정답은

5월 25일까지 전자메일(parkm@kma.g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전화 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사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임명	4.16	기상청	기상사무관 시보	박수희	
			기상사무관 시보	김해연	
			방송통신사무관 시보	김진석	
전보	4.16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정규	
전보	4.30	기상산업정보화국	일반직고위공무원	남재철	
승진	4.30	부산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성근	
휴직(연장) 퇴직	5.6	기상청	기술서기관	이미자	
	5.2	대전지방기상청	기후과 서기관	임용기	
승진	5.14	예보국	예보정책과	부이사관(과장)	유희동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부이사관(과장)	이재병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부이사관(과장)	이동일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전준환
		운영지원과		서기관	조진현
		예보국	슈퍼컴퓨터운영과	기술서기관	홍성대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술서기관	원재광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	기술서기관	김용상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기상사무관	허진호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기상연구관	하종철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행정사무관(팀장)	민현주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임교순		
전보	5.14	예보국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과장)	정현숙
		기후과학국	한반도기상기후팀	기술서기관(팀장)	박정규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기술서기관(팀장)	권오용
		광주지방기상청	기후과	서기관(과장)	안용모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과	서기관(과장)	조기현
		항공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고정석
		기획조정관실	인력개발담당관실	기술서기관(과장)	유상진
		대전지방기상청	기후과	서기관(과장)	김병동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	기술서기관(과장)	연혁진
		부산지방기상청	안동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신기창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5.14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유근기
		대전인실		기상사무관	장현식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기상사무관	김재호
		기획조정관실	인력개발담당관실	기상사무관	문재인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기상사무관	정혜훈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권영근
		운영지원과		기상사무관	김희철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기상사무관	인희진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기상사무관	김태수
		예보국	수치모델개발과	기상연구관 시보	이승우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연구관	김지영
		관측기반국	지진정책과	방송통신사무관	이용상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기상사무관	최재천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김정선
		기후과학국	한반도기상기후팀	기상사무관	김병준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자원과	전산사무관	이명희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	변재영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기상사무관	최두수		
부산지방기상청	상주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김시중		
부산지방기상청	진주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김승관		
부산지방기상청	거창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박광오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	기상사무관	김병철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손태성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	기상사무관	노성길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행정사무관(팀장)	박호문		
강원지방기상청	속초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이광주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기상사무관	박영연		
제주지방기상청	성산기상대	방송통신사무관(대장)	이욱기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행정사무관(과장)	임하권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	기상사무관	윤정빈		
항공기상청	무안공항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김용범		

기후변화 포스터공모

녹색성장위원회, 기상청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기후변화 포스터를 공모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 ▶ **공모부문** : 기후변화 포스터(작품유형 :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 ▶ **접수기간** : 2012. 5. 1(화) ~ 5. 21(월) 18:00까지
-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 ▶ **제출서류** : 작품, 출품지원서 각 1부
 - 작품 : 4절(39.4cm×54.5cm) 크기 직접 그린 작품
 - 출품지원서 : 소정양식 1부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또는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에서 양식(붙임1)을 다운받아 작성
-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156-72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후정책과

※ 우편접수 시 5월 21일자 소인까지 인정하고 우편발송 후 등기발송 영수증 사본을 5월 22일까지
이메일(clpol@korea.kr)로 반드시 제출해야함
- ▶ **결과발표** : 2012. 6. 1(금),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상청 홈페이지 공지

기타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 02-2181-0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4th Session of JCOMM

The 4th Session of the Joint WMO-IOC Technical Commission for Oceanography and Marine Meteorology

Conference Hall, International Pavilion,
EXPO 2012 Yeosu Korea
23-31 May 2012



Save the future with **JCOMM**
www.jcomm.info/JCOMM4

